

선수들 시상대 거부·악수 거절... '논란의 2관왕' 쑨양



'도핑 논란' 쑨양, 1위 선수 실격으로 자유형 200m 2연패 3위 선수 시상대 오르지 않자 불만 폭발 경고도 받아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쑨양(28·중국)이 될 전망이다.

쑨양은 지난 23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대회 경영 종목 첫 금메달이 걸려있던 지난 21일, 쑨양은 자유형 400m에서 대회 4연패를 이루며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여기에 평소 쑨양의 도핑 문제와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2위 맥 홀턴(호주)이 함께 시상대에 서기를 거부하는 등 '무언의 시위'에 나서면서 쑨양은 논란의 중심에 서게됐다.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건 순간은 더욱 요란했다.

이 경기에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짚은 선수는 3번 레인에서 경기를 한 라투아니아의 다나스 랍시스. 하지만 모든 선수가 결승선에 들어온 뒤 경기장에는 함성과 야

유가 교차했다. 전광판에 랍시스 이름 옆에 실격(disqualify)을 뜻하는 DSQ가 표기된 것이다.

부정 출발로 랍시스가 실격되면서 2위였던 쑨양이 시상대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게 됐다.

관중석에서는 쑨양을 응원하는 중국 응원단의 함성과 그의 도핑 논란에 굽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선수들의 야유가 동시에 쏟아졌다. 야유의 진앙지는 쑨양 자신이다.

그는 지난해 9월 국제 도핑시험관리(IDTM) 직원들이 도핑검사 샘플을 채집하기 위해 자택을 방문하자 경호원들과 함께 망치를 이용해 혈액이 담긴 도핑용 유리병을 깨뜨렸다. 2014년 금지약물 복용 의혹을 받고도 3개월 출전 정지의 '경정계'를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상식에서는 점입가경의 상황이 연출됐다. 3위로 들어온 마쓰모토 카쓰히로(일본)가 은메달을 얻게 됐고, 1분45초63으로 나란히 경기를 끝낸 마르틴 말류틴(리

시아)과 던컨 스콧(영국)이 동메달을 얻게 되면서 4명의 선수가 시상식을 위해 자리를 했다.

하지만 스콧은 쑨양의 악수를 거절했다. 스콧은 취재진의 사진 촬영 순간에도 쑨양과 멀찍이 떨어져 자리잡았다. 심지어 다른 메달리스트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동안 관람석의 선수들을 향해 손을 흔든 뒤 먼저 자리를 떴다. 스콧이 퇴장하자 경기장은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다. 그의 행동을 지지하는 선수들의 함성과 중국 응원단의 야유가 뒤섞였다.

이날 국제수영연맹(FINA)은 남자 자유형 400m에서 사진 촬영을 거부한 맥 홀턴에게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면 경고를 보냈었다.

하지만 또 다른 논란의 현안이 연출됐고 FINA는 24일 다시 한번 경고 징계를 내렸다. 이번에는 쑨양에게도 경고가 주어졌다. 쑨양이 시상식이 끝난 뒤 스콧을 향해 언성을 높인 게 이유였다.

AFP통신에 따르면 쑨양은 "나는 패자



지난 23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경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우승한 중국의 쑨양이 시상대에 함께 올라서기를 거부하는 동메달리스트 영국의 던컨 스콧(오른쪽)을 지나치고 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 제공>

고 나는 승자다(You're a loser. I win)" 라고 말했다. FINA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집행부

가 자유형 200m 시상식에서 일어난 상황을 분석해 던컨 스콧과 쑨양에게 경고 조치했다"며 "두 선수 모두 시상대에서 부적

절한 행동을 해서 FINA 규정 C 12.1.3에 따라 징계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단=김여울 기자 wool@

日 수출규제 논의 WTO 이사회 개최...한일 여론전

한국 "자유무역 주장 ... 일본 이중성 국제사회에 알릴 것"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이를 일점으로 시작했다.

일본이 이달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날 회의장 주변은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한국 정부 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성장실장전담실장은 회의 시작 5분여 전께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이미연 차석대사 등 정부 대표단과 함께 WTO회의장에 도착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발언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입장했다.

일본에서는 오전에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애초 일본측 정부 대표로 파견된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도 오후 5시께 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한국이 의제로 제안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이날 상소기구 구성 등 다른 안건 논의가 길어지면서 24일 다뤄지게 됐다.

기타 안건을 제외한 전체 14개 안건 중 일본의 수출 규제 안건은 11번째로 올라 있었다.

김승호 실장은 오후 회의 시작에 맞춰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제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연합뉴스

일반 이사회에는 각 회원국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김 실장을 정부 대표로 파견했다.

이달 9일 열린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백지아 대사와 준이치 대사가 설전을 벌였다.

한국과 일본은 상품 무역 이사회 이후 14일 만에 다시 WTO 테이블에서 공방을 벌이게 됐다.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구속력 있는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WTO에서 자유무역을 주장해온 일본의 이중성을 회원국들에 설명하고 국제 사회의 여론을 조성해 일본을 압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회 방미단 오늘 출국...워싱턴 무대로 "日보복 부당" 외교전

한미일 의원회의서 경제 논의 美 상하원 의원 면담 추진

여야 의원들로 꾸려진 국회 방미단이 24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국회 방미단은 3박 5일간 미국 워싱턴DC에 머물며 의원 외교활동을 펼친다.

방미단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을 단장으로, 민주당 박경미·이수혁, 자유한국당 김세연·최교일, 바른미래당 유의동·이상돈 의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방미단은 오는 25일 한미일 의원회의 공식 환영 만찬, 26일 한미일 의원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번 한미일 의원회의에서는 한미일 3국의 경제 및 무역 이슈, 북한과 미국·러시아의 관계, 중국 국방·군대의 현대화 등 안보 이슈가 다뤄진다.

미국 대표단은 민주당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을 대표단장으로, 덴 파페이 전 하원의원, 테니스 헤르만 전 하원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여야 방미단이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최교일, 바른미래당 이상돈, 유의동,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연합뉴스

카가와 마사하루 무소속 중의원을 비롯해 이노구치 쿠니코 자민당 참의원, 야마모토 고조 자민당 중의원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미단은 공식 일정을 전후로 미국 상·하원 의원, 국무부 고위 인사와 면담해 일본의 부당한 보복적 경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톰 코튼(공화

당) 상원의원, 테드 요호(공화당) 하원의원과 면담은 일정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단은 이와 함께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폐 촉구 결의안'을 각국 의원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경매

단독/공동투자 하실분 (주)오천경매,010-3605-5000

-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 소유권/근저당으로 채권보장
- ▶ 현금 5억원이상 가능한 분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증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시골집 원도읍 청산면 대지 440㎡ 주택 52㎡ 조용한생활 최적 4800만원
-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2311㎡ 블루베리 500여주 식재 8500만원
- 무안군 정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6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특급물건

- 목포대 인근 무안정계 2중주거지 담 4413㎡ 출점 2억4천 투지에 좋은 4억5천
- 신안군 임태면 부두서 10분거리 독립 집 56233㎡ 독립개발적합 3억7천

투자·매도·교환

- 완도읍 원도읍 산 자연녹지 3306㎡ 전망좋은 사찰적합 5000만원
- 월산동 다지구 대지 188㎡ 주택 177㎡ 방 10실 전세 800 월 150 임대 은행 3억5천 매도 2억6천
- 곡성군 임면 매월리 임아·전 24056㎡ 농장·귀농생활 적합 9천만원
- 남구 월산동 소밭도 상가주택 대지 104㎡ 건평 98㎡ 공실임 1억2천
- 함평 손불면 산남리 전 8588㎡ 귀농생활적합 2억6500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이피드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중주택 4억4천

상가건물

- 나주 혁신도시 중심지 3층 193㎡ 분양 4억9천 은행 2억5천 매도·교환 5억
- 대안동 버스도막 709㎡ 건평 810㎡ 시육 등 적합 공사지가 13억7천 매도 26억
- 두암동 버스도로 5층건물 대지 301㎡ 건평 997㎡ 임대생활적합 8억2천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는 공실 17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신안 임태면 천사대교에서 15분 53397㎡ 중 계획관리지역 70%선 다용도 개발 5억6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다용도 개발 적합 은행 3억5천 매도 13억
- 광산구 덕림동 계획관리지역중심 29144㎡ 다용도 투자에도 양호 10억8천
-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전원주택단지 적합 27215㎡ 광주서 30분거리 13억2천
- 나주시 금천면 영산강부근 땅 26334㎡ 전원주택형 빌라 등 적합 29억
- 영암군 혁신면 영산강점 97404㎡ 건평 8억4천선 하자 5억8천 매도 3천
- 나주시 다시면 광목길도로 4323㎡ 유동시설·창고 등 적합 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면앞

혼란기 시대 부동산 투자전략 무료 특강

시기가 변하면 투자전략도 변해야 한다.

혼란기시대에 부동산 투자에 정곡을 찌르는 알찬강의!

2019년 하반기에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찾을 수 있는 특별강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부동산 전망과 재-테크 성공 전략

강사 : 정 영 수 경영학박사 (부동산마케팅 전공)

- 한국부동산정보연구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광주 전남지부장
- 前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KPC) 위촉교수, 공무원연수원 등 초청강의

- 일 시 | 2019년 7월 26(금) 오후 2시
- 장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면하로 112 (제갈랑비스트타워 1층 모아강의홀)
- 특 전 | 1. 추첨선 물-정관장, 가전제품 등
2. 참가자지원-기념품 제공

※선착순 70명 전화접수 마감

접수전화 062)385-9989